

“6강 플레이오프 티켓 잡아라”

광주·전남 등 중위권 7개팀 순위 다툼 안갯속 수원 등 나머지 팀들도 ‘실낱 희망’ 마지막 불꽃



프로축구 녹색 그라운드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1위 FC 서울이 2연패에도 불구하고 전북 현대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중위권 팀들의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승점 39)-전북(승점 35)-포항(승점 33)의 삼각구도로 선두 경쟁전이 펼쳐지는 동안 6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노선 확보를 위한 광주-전남-인천(이상 승점 30)-제주(승점 27)-성남(승점 26)-강원(승점 24)-대전(승점 23)의 7파전도 치열하다.

10위권 밖으로 밀려 있지만 11위 울산부터 13위 경남까지 모두 승점 22점의 동률을 이루며 6강 플레이오프의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다.

▲서울의 독주를 막아라=트레블(정규리그, 컵 대회, AFC 챔피언스리그 동시

우승)의 꿈을 키웠던 서울은 최근 포항(2-5패)과 울산(0-2패)에 연속으로 발목을 잡히면서 상승세가 꺾였다.

2위 전북보다 승점에서 4점이나 앞서며 정규리그 선두를 지키는 서울이지만 최근 포항과 컵 대회 4강전을 마치고 세를 귀네수 감독이 ‘한국 축구를 다시 볼 필요는 없고 야구만을 봐야 할 것 같다. 한국에서는 심판 3명만 있으면 챔피언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인터뷰 내용이 프로연맹 상설위원회에 넘겨진 상태여서 팀 분위기가 위축중이다.

서울이 흔들리는 틈을 타 2위 전북과 3위 포항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시즌 초반 9경기 연속 무패(6승3무)의 저력을 과시했던 전북은 44일만의 골 침묵을 깨고 부활포를 터트린 이동국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을 2점 차로 압박하는 포항도 정규리그에서만 10경기(7승3무)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컵 대회 결승까지 오르는 절정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시즌 막판 역전쇼도 점쳐진다.

▲6강 플레이오프 ‘알 수 없네!’=전남과 상무는 지난 주말 K-리그 정규리그 20라운드 경기에서 각각 승점 3점과 1점을 챙기며 6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남은 홈에서 열린 수원과의 대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5위로 뛰어올랐고, 6연패의 늪에 빠졌던 상무는 원정길에 나서 강원에게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4위 자리로 복귀했다.

챔피언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6강 플레이오프를 놓고 사실상 가망이 없는 ‘꼴찌’ 대구(승점 10)를 빼면 4위 상무부터 14위 수원까지 무려 11팀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상무와 수원의 승점 차는 9점. 현재 20라운드를 치른 상황에서 앞으로 세 경기 정도 더 치르고 나면 6강 플레이오프의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7위 제주(승점 27)와 8위 성남(승점 26), 9위 강원(승점 24)이 6강 플레이오프 막차의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가운데 전남과 인천, 성남, 강원은 다른 팀들에 비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서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같은 날 13위 경남도 최근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4골1도움)를 기록한 김동찬의 활약으로 최근 2연승을 거두며 후반기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합뉴스



세계 명궁들 “꿈을 향해 싸라”

제45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전 세계 양궁선수들이 지난달 31일 울산대학교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어르신들 ‘친선·화합’ 다진다

9일 인천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광주·전남 14개종목 700여명 참가

2009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오는 9일부터 3일간 인천 일원에서 열린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인천광역시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16개 시·도 8천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축구·배드민턴·탁구·게이트볼·정구·테니스·볼링·생활체조·자전거·국악기공 등 15개 종목에 걸쳐 그간 닦아온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번 대회에 광주생활체육회(회장·김창준)는 14개 종목에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오는 9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생활체육회 1층 전천후게이트볼구장에서 결단식을 갖는다.

김창준 회장은 “광주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장수도시 광주’ ‘살기좋은 광주’를 알리고 참가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일 오전 10시 백양사휴게소에서 결단식을 가진 광주생활체육회(회장·김창준)는 14개 종목에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탁우 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뜻깊음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



지난해 열린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모습.

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인들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 여건 조성을 위해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실시되는 이 대회의 참가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며, 동호인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참가자 제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다. 개최식은 9일 오후 삼산월드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특히 ‘꿈을 향해 으랏차

차!’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펼쳐지는 개막식 행사에는 각종 공연과 시도별 응원 퍼레이드·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한편 광주생활체육회는 10일 삼산월드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일반부 19명·대학부 12명 등 총 31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축구 대표팀 “호주를 넘어라”

5일 평가전 앞두고 해외파 소집
국내파 선수들은 3일 합류키로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호주와 평가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대표팀은 오늘 낮 12시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해외파들을 먼저 불러모아 담금질에 들어간다.

K-리거들도 같은 날 소집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48시간 전 차출’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소집 일정을 이틀 뒤인 같은 달 3일로 미뤘다.

호주와 평가전에는 지난달 12일 파라과이와 친선경기 때 빠졌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7호 한국인 프리미어리가 이청용(볼턴) 등 해외파 10명이 총출동한다.

1년여 만에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은 프리미어러가 설기현(풀럼), 일본 J-리그에서

뛰는 김남일(빗셀 고베)도 포함됐다. 또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와 김동진(제니트), 이정수(교토), 조원희(위건),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 이근호(이와타)도 허정무 감독의 재신임을 받았다.

팔꿈치 탈골로 우려를 낳았던 박주영은 부상 복귀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코뼈를 다쳐던 김남일도 부상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표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파 차출이어서 이들은 자신의 기량을 점검받는 한편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밝히기 위한 치열한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내파 선수들은 이틀 뒤인 3일 낮 12시 대표팀에 합류한다.

13명 가운데 이승현(부산)만 2일 열리는 포항과 피스컵코리아 결승 1차전에 참가하기 때문에 소집 당일부터 해외파들과 발을 맞춘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축구 4연승

대만 6-0 꺾고 亞선수권 본선행

한국 여자축구가 2010 동아시아축구연맹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예선전에서 패조의 4연승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안익수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지난 달 30일 대만 카운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만과 대회 4차전에서 6-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4연승으로 내년 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연맹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여자 대표팀은 이미 본선에 진출한 중국, 북한, 일본과 우승을 놓고 겨룬다. /연합뉴스



1일(화)
▲프로야구 <한화> 두산(18:15·X-ports·KBSN SPORTS), <SK> 히어로즈(18:20·MBCESP.N), <KIA> 롯데(18:15·SBS스포츠)

세계검도선수권대회 한국 남자 단체전 동메달

한국 남자 검도팀이 광주 북구청 최철규와 김용철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벽에 막혀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실패했다.

한국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일본

에 1-2로 저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5명의 겨루는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국은 일본을 맞아 0-2로 뒤지자 김완수가 우치무리에 머리치기를 성공하며 1-2로 따라갔다. 하지만 나머지 두 선수가 잇달아 비겨 역전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금단의 고동! 이토바 전자담배가 해결해 드립니다!
담배, 카우чин사 줄릴 수 있는 신개념 웰빙 전자담배입니다.

전자담배(이토바)는 전자식 니코틴 흡입장치로서 흡입시 흡연자와 내장기관에 비해 1/10가량 흡입되어 있어 무취기에 의해 담배갑에서 추출한 에센스 도미향을 주원료로 한 액체 상태의 카트리지와 분무하고 인체에 유해한 연유수증기를 흡입하지 않으므로 담배 담배를 피우는 것의 유익한 효과를 주는 새로운 개념의 웰빙-전자담배입니다.

최종한 가족과 당신의 건강을 위한
신개념 웰빙 전자담배- 이토바

이토바는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연유수증기를 흡입하지 않
 흡연의 기쁨을 전하시는 것
 건강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으신 것

이토바는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512-1334 / 010-9807-8563

가장 편안하고 저렴한 곳
무등산 분만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신할부오와 당신의 가치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 신할부오와는 신할부오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은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은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 신할부오와는 신할부오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곳입니다.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은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은 신할부오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